



1회 자치학교

'스스로 만드는 학생회 교실'

(학생들 속에서 사랑받는 진정한 자치기구, 대변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강의	날짜	내용	강사
1강	1/7(일)	오리엔테이션-설레는 첫만남! 다른 학교의 학생회, 새로운 얼굴들과 서로의 활동을 나눠봐요.	
2강	1/9(화)	학생회 활동이란 무엇인가?-학생회 활동의 소중함 학생회의 가장 든든한 백은? 학교? 선생님? NO! 바로 우리 학생들이지요. 전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학생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산사직여고학생회
3강	1/10(수)	우리 학생회 일년나기 프로그램 '일년동안 무엇을 해야하나' 이런 고민은 이제 그만! 선거, 축제 등 월별 행사와 각 부서 활동까지 자세히 계획해봅시다!	풍문여고 학생회
4강	1/12(금)	민주적 운영과 리더쉽 학생회 활동 이렇게 하면 두 배로 잘 할 수 있다! 민주적 회의 진행과 토론방법(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총회 등)을 배우고, 토론해봅시다!	안승문선생님 (전교조 신문국 편집실장)
LT	1/13-14 (토-일)	학생회 간부 수련회 학생회 간부가 갖춰야 할 자질과 자세! 모의 학생회 선거-정책공약대결에서 선출방법까지! 각 학교 한해 활동 사례발표, 2001년 학생회 활동계획도 세워봅시다!	

주최 :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주관 : 학생자치활동사업부

후원 :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 '미지'

기간 : 1/7 - 1/14 (LT포함, 일주일간)

대상 :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운영위원 중심(1.2학년)

장소 : 서울 명동 미지센터 / 시간 : 늦은 2 - 6시

인원 : 20명(선착순 모집) / 회비 : 5,000원(LT 별도)

L T : 1/13 - 14 (이천 유네스코 청년원, 1박 2일, 회비별도)

문의 및 접수 : 755-5856 / 011-9978-6540(담당자 : 백성균)

홈페이지 : www.heemang21.net

당신은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며,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반짝이고 그의 가슴은 언제나 뛰고 있으며
그의 눈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쉽게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거룩한 꿈을 이루려는 불타는 열정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꿈만 꾀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세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크게는 국가의 조직에도 필요하고 작게는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가 지도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비전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었드려있는 새가 높이 날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듯
참된 지도자는 오래 었드려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높이 나는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도자입니까?



스스로 만드는 학생회 교실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진정한 대표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학생회 선거에 당선되었을 때를 기억하는지요. 쟁쟁한 후보들을 재치고, 많은 학생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하늘을 날 것 같던 그 순간. 또, 학급에서의 반장이 되어 학생회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설레임도 기억하는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무게가 간부들에겐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의 학생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사업을 진행해야 할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선생님들과의 마찰로 활동에 힘을 잃어가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친구들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학생회 간부들 서로가 툭툭 뭉쳐있어야 하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회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학교-스스로 만드는 학생회 교실>을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학생회를 만나 각자의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일년나기 사업도 계획해 보고, 또 간부로서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등, 학생회활동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이 교실을 준비하면서 여러 학교 학생회를 만나보았습니다. 학생을 학교의 주인이 아닌 단지 교육의 대상으로서 암전히 공부만 하라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적인 태도에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학교의 진정한 주인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외치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학교에서 몸소 실천해보며, 엄연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학교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학생회가 학생회 활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 형식적인 학생들의 대표기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가장 불만요소입니다. 진정한 학생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생회로 거듭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그리고,

여러 다른 학생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학생회를 건설해봅시다!



자치활동의 소중함!

우리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 학습의 경우를 보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적대적인 상호경쟁을 하며, 모두가 고독한 개인 학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의 싸움에 필요한 끈질긴 인내력과 독기의 부족만 자학할 뿐, 서로 돕고 가르쳐 주고 배우는 학습의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초, 중, 고 12년의 생활을 통해, 닥친 문제를 토론하여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대방 의견의 중요성과 집단 지혜의 위대함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통합된 의견으로 공동 행동을 통해 큰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한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소중함을 느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공동체 생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주변 일에 국한 될 뿐이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한 학급과 학교를 대상화하여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개인보다 훨씬 넓고 심화된 인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비약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유비+장비+관우의 경우, 1+1+1=3이지만 그들의 공동체는 100 이상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배우게끔 하는 기회가 바로 자치활동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으로는 학급의 모둠 활동, 학급회의, 학생회, 특별활동, 학교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하는 소모임이나 동아리, 토론회, 축제 등 다양한 활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활동이야말로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지평을 열어 나갈 천재일우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자치활동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학생들에게 주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학급,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의 주체성은 무척 부족합니다. 교과 학습은 주입식으로, 생활 학습은 통제식으로 대상화되어 로봇처럼 따르면 됩니다. 기껏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 까먹는 일이나 화장실 가는 일이나 주체성이 있을런지요? 그러나 학급회의가 활성화되어, 모든 사람의 의견이 수렴, 통합되어 학급이 단결될 때, 학생들은 드디어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원하는 학급 분위기 조성, 학급문고 및 학습자료 설치,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 같이 하기, 학급비 사용, 학생들의 고통 해결책 창안 등 온갖 것에 있어서 자기의 주체적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노예의 경우도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서는 주인으로 설 수 없지만, 힘을 합치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 자치 생활이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상호 신뢰와 사랑 속에 모두가 성장하는 학급 생활을(학급 생활은 학생의 1년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장래까지 좌우하는 심각한 공동 운명체 생활입니다.) 영위할 수 있을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의 활성화가 보다 폭 넓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생의 주체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치활동의 경험은 인간 관계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 주체성 등 인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사실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품성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고통과 과제를 친구들의 지혜와 도움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가질 때, 타인의 지혜와 힘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품성'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학생들의 처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령 한 학교 학생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학생의 이익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존중하고 행동한다면, 학생 복지 시설도 개선할 수 있고, 진정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행사 추진, 또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동아리, 소모임, 언론 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소모임, 동아리 등 여러가지 자치활동을 통해, 자기의 취미, 특기, 장래 희망을 살려내고, 자기의 장점을 동료들과의 우정 속에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에게 꿈과 사랑의 희망찬 학교 생활을 보장해 주는 요체입니다. 학생들은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 라는 원칙 하에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으로 회의 진행방법 등 민주적인 방식을 익히면서 각종 자치활동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집 짓기

알고 지내던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으로 그려나갔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는데도,
 늘 우리는 지붕부터 집을 그리게 됩니다.

-신영복의 '나무야나무야'중에서-



1강 학생회 활동의 소중함

'몸소 활동하며 경험한 학생회 활동의 소중함'

성민정(99년 부산 사직여고 학생회장)

부산 사직여고는 1988년 개교한 이래 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자랑할 만한 역사와 전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첨단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후원이 두둑한 동창회나 낙성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면 자유롭고 생기발랄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사직여고만의 개성이 살아있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당당한 사직여고로 발돋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풍은 물론 모든 사직인 힘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느 학교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생회 활동으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학교 학생회는 3학년 학생 정.부회장, 2학년 부회장, 총무, 학예, 언론, 체육, 환경, 선도 등 6개 부서의 3학년 부장과 2학년 차장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각 학급반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개교 초기 민주화 운동의 흐름이 이어져왔고, 해를 거듭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임을 일깨우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열기 선배들까지 전통을 세우는 기반을 다지는 데 열과 성을 쏟으면서, 우리 후배들은 나름의 전통을 세우는 작업들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로 학생회 활동의 소중함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우리학교에서 매달 한 번을 원칙으로 공개 대의원회로 이야기를 열까 합니다. 공개 대의원회는 각 반 반장들과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진 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회의 사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학생의 주인됨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97년 처음으로 시도했을 때, 선생님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반대로 일반 학생들이 없는 명목상의 공개 대의원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8년 학생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시간대 결정 문제부터 학생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에서는 보충수업시간에 대의원회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대의원회는 형식상 존재하는 것쯤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부에서 말입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지와 건의함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각 반 회의에서 참여 지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공개 대의원회를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설문지에 쓰여진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학생들은 학생회를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설득시키는 고나플 정도로 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선 "저것들! 늘 학교나 시끄럽게 하지!", 학생들은 "학생회 저네 재미로 하는 거 아냐? 대체 뭘 해?" 두 소리 가운데서 우리 학생회는 적들에 휩싸인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뚜렷해진 것은 양 쪽 다 적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직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불신과 불만 가운데서 학생회가 택한 것은 설문지와 건의함, 간담회, 교실 순방 등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올바르게 알고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설문지는 매 대의원회를 전후로 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했습니다. 회의 주제 선정 및 교내에서의 학생들의 이슈, 건의사항 등을 물었습니다. 처음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학생회에서는 질문의 내용이나 쪽을 정하는 것부터 회수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확도도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냥 버리거나 낙서나 욕설을 적어서 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꼭 급히 필요한 이슈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페이지를 넘겨가며 성심성의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학생회가 수고 많다면 격려의 메시지도 남겨주었습니다. 차츰 서로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500장의 설



문지를 일일이 읽고, 퍼센테이지를 뽑아 내고, 광고로 곳곳에 붙이는 일들이 웃음과 보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용의 복장 규정 개정시에는 간담회로 문제를 풀어 나아갔습니다. 사직여고는 사립학교라 재단의 힘이 꽤 가해지는 학교였고, 그 해 교장 선생님께서는 권위적이셔서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회의장에서 학생의견 존중을 건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시고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하셨습니다. 학생회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담회를 두 해를 걸쳐 건의하면서 용의 복장 규정 개정 건으로 학생부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서로의 개정안을 조정해 가며 두 달을 이어갔습니다. 매 번 꼬리가 흐려질까봐 다음 간담회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간담회 사이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용의 복장에 대해 학생들은 두발 자유를 중심으로 합일점이 찾아졌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부서 인수인계가 있던 차라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2주 간격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방학 내내 개정안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간담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때 효과적으로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교실 순방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 등의 짬을 이용하여 30개 학급에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묻고 설득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약속에 책임을 지고 권리를 찾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회를 주축으로 용의 복장 규정 개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힘을 얻었고, 학생들은 학생회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회와 학생들이 함께 한 활동 중에 한 해 내내 뿌듯했던 일이 있습니다. 환경부 활동으로 학교에 꽃을 피운 일입니다. 우리학교는 높은 산에 위치하여 맞바람이 치는 지형이라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삭막한 학교를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고자 98년도 초부터 환경부에서 생물부와 생물 선생님, 환경부 담당 선생님과 토질을 분석하고 여러 종자를 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체제와 함께 들고 있는 각 학급 환경부를 중심으로 각 반에서 함께 꽃밭을 나누어 가꾸었습니다. 그 해 처음으로 갖가지 꽃들이 화단을 메웠고 학생들의 손이 고루 거쳤기에 모두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 이후 긴 등교길에는 줄장미를 심고, 나팔꽃을 이어 등교길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꽃을 심으면서 꽃밭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꽃순이로 전체적인 꽃밭관리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꽃순이는 기존에 체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깔고미와 함께 아나고, 힘씀이 등을 조직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학생들이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거 때에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 물품을 대여하여 실제 선거 상황처럼 임원을 뽑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쓸데없이 귀찮고 힘든 일을 왜 하느냐 하셨지만, 학생들은 실제 선거 물품을 사용하는 재미와 함께 자신의 표에 진지해진다며 만족해했습니다.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각각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각 학생들이 자신의 색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는 활동이 학생회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언뜻 보면 균중의 하나로 연약하게 보이고, 어떤 색도 가지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모를 뿐 분명히 그들 나름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의 힘을 기반으로 그 색을 드러내도록 추구하고 색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함께 웃는 학교, 오고 싶은 학교는 우리가 만듭니다.



부산 사직여고 학생회 활동 소개

1. 학생회 구성

운영위원회(3학년 회장, 수석부회장, 2학년 차석부회장과 2, 3학년 각 1명씩의 총무, 선도, 학예 등 총 15명)와 1, 2, 3학년 각반 반장(30명)으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대부분의 학교는 각반 반장이 학생회 운영을 겸직하고 있어 어느 곳 하나 집중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것에 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다.

2. 학생회 주요활동 소개

1) 대의원회 : 월1회,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회의가 항상 정착되어 전 회의가 잘 진행되는 경우 많으면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학생들의 대의원회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져 학생회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발언이 굉장히 적극적이며, 매우 진지합니다.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학급회의와 게시판 공고를 통해 전교생들에게 전달되며, 대의원회 후 운영위와 학생부 각 사항과 관련된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 사항들을 전달하며, 선생님들과의 간담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실제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 월별 주요 활동사항

- 3월 : 임원 수련회, 대의원회
- 4월 : 화단가꾸기, 대의원회
- 5월 : 체육대회, 스승의 날 행사, 대의원회
- 6월 : 대의원회
- 7월 : 1학기 반성, 대의원회
- 8월 : 방학
- 9월 : 대의원회
- 10월 : 11월 수능격려준비, 대의원회
- 11월 : 학생의 날 행사, 수능격려, 대의원회
- 12월 : 학예제(추제), 대의원회
- 1월 : 방학
- 2월 : 학생회 선거, 교복물려주기행사, 대의원회, 기물림

3. 각 부서별 활동 사항

1) 총무부

- 학생회비 관리 : 학생회 운영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곳에 사용
- 그외 전반적인 운영에 힘씀

2) 선도부

- 학생들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에 힘씀(선도부원에게 봉사활동 부여)
- 여러 행사 때 질서 유지에 힘씀

3) 학예부

- 학예차장은 동아리연합회장도 맡아 학생 중심의 학예제 만들어감
-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인 활동에 힘씀(총 동아리 40여개가 활동중)

4) 환경부



- 학년 초 각반 환경부장들과 화단 가꾸기에 주력
 - 힘씀이, 깔끄미, 아나고 등의 환경 도우미 학생들을 선발, 교내 청결운동에 앞장섬(봉사활동시간 부여)
 -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주축으로 활동, 아나바다 운동
- 5) 체육부
- 급식 아주머니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생위생, 건강에 힘씀
 - 체육대회의 주축으로 활동
- 6) 언론부
- 학생회 활동 공고 담당 / 회의록 작성
 - '마음에 담은 글'이라는 게시판과 학생회 게시판 담당

물은요

물은요...

항상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아 멈추는 일이 없답니다.

물은요...

장애를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힘을 몇 배로 한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지요.

물은요...

스스로 맑으려고 하고 다른 것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또.. 맑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지요...

물은요...

넓은 바다를 채우고, 때론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얼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성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물은요...

항상 낮은 곳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커다란 바다를 이루고야 말지요.

우리... 물을 닦아보는 건 어떨는지...



2강 우리 학생회 1년나기 활동

'학생회 활동 이렇게 해봐요!'

강경해(2000년 풍문여고 학생회 부회장)

1. 학생회 월별 사업계획

- 2월 : 선거 / 졸업식
- 3월 : 임기시작 발대식 / OT
- 4월 : 4.19행사
- 5월 : 스승의 날 행사 / 5.18행사
- 6월 :
- 7월 : 동아리 야영
- 8월 : 축제
- 9월 : 체육대회
- 10월 :
- 11월 : 학생의 날 기념행사 / 수능응원, 선물
- 12월 : 선거후보등록
- 1월 : 사업정리

2. 학생회 사업 세부사항

● 회장단

1. 발대식 : 새로운 기의 임기의 출범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기념식
 예전의 발대식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고사를 지내고 풍문 모든 학우가 총학생회 임을 인식하는 큰 행사였으나, 현재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발대식이 당일 교문 앞에서 새로운 기의 출범을 알리고 학생회의 존재를 학우에게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잡음.

- 행사내용 : 학생회 13기의 예

- 풍문인 등교시간 : 교문인사(학생회 이름을 학우들에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반인사 : 각반에 들어가 인사, 학우들의 학생회 존재인식(학생회 임원단 소개 및 학생회 홍보, 어떤 학생회가 되겠다는 것을 알림)
- 고사 : 학교의 반대로 전교생은 모이지 못하고 학생회 인만 고사를 지냄
- 교무회의때 선생님들에게 인사 / 출범대자보 게시 / 아침방송

2. 스승의 날 : 대의원회를 통하여 정해진 대로 행사진행 함

- 행사내용 : 학생회 13기의 예

- 전교생들에게 엽서를 나누어주고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씀
- 대자보를 통한 편지글 /
- 선물비용 줄이기 위한 단체선물 준비(다기세트, 학생들의 편지가 담긴 앨범 등)

3. 5·18기념행사 : 학생들에게 역사바로알기 및 현재모습 자각

- 역사적 자료전시(배경, 전개과정, 의의, 현재의의, 다시보는 5.18등의 내용) / 아침방송

4. 영화상영 : 학생들의 작은 컴퓨터 교실극장



...only feel 이라는 이름아래

학우들이 볼만한 영화 수업에 관련된 영화 등 매회 테마를 정하여 매월 셋째주 목-금-토요일 방과후 1일 2편 2회 상영하고 있다.

영화상영이 있는 날에는 영화상영 표시기, 영화제목과 함께 각 반 칠판에 붙여 학우들에게 알린다

5. 수능응원 : 대의원회에서 행사 결정

1.2학년 후배들의 맘을 모아 고3들에게 수능 떡, 편지 및 수능 선물을 드림.

수능 당일 대의원들과 함께 응원 감.

6. 대의원회 : 학교의 중대사 결정 및 행사 진행, 예결산 인준, 부장단 인준시 평균적으로 주에 한번 씩 있다. 대의원회가 있는 날은 안전일시 장소를 쓴 대의원회 표시기를 통해 각 반 대의원에게 알림

7. 공개회의 : 학교의 행사 및 예산인준, 학생회 사업 및 행사 평가시, 기타회의시 일반학우들에게 공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8. 공청회주관 : 학생들과 학교간의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공청회 실시(예) 13기 학생회

용의복장 규정에 대한 공청회 / 강당에서 용의복장 규정에 관한 공청회 실시

생활부 선생님, 생활부 부장,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에서 지원한 20명(1.2학년)

9. 선거관리 : 선거관리 위원회가 되어 선거 진행을 한다.

· 후보등록 받음 / 투표소 설치 / 강당유세 기획 및 진행 / 각 후보 부정행위 감시 / 개표

10. 졸업식 : 졸업식에 오신 손님 대접 (차 준비 및 정리)

11. 공약 관련 사업 및 학교 공식행사 : 백혈병 학우 돕기 모금, 산불재해 의연금 모금, 바자회, 용의복장규정에 관한 사업, 자율독서실 개설, 인터넷 검색실 기설사업 등

12. 행사기록 : 학생회의 행사시 기록남김(사진 및 ohp필름)

● 총무부

1. 예산집행 및 관리 : 매년 초 학교의 등록금 중 학생회비로 1인당 7,000원의 학생회비가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쓸 수 없는 돈이며 총무부에게 각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한다.

2. 예산지 MONEY 발행 및 살림살이 운영 : 대의원들에게 인준되어 편성된 예산의 목록을 예산지로 만들어 각반 살림살이라는 총무부 게시관에 게시한다.

3. 4.19행사 : 4.19역사 바로 알리기 및 다시보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

· 자료전시(배경, 전개과정, 의의, 현재의의의, 4.19관련 각종 자료, 시, 그림, 사진전시)

· 아침방송 회장의 4.19알림 간단한 의의와 묵념

· 학급 대자보 : 각 반마다 4.19를 서면으로 통해 알림(어떤날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위기 조성)

4. 학생회지 '참다랑개'발행 : 학생회에서 내는 회지로써 학생회의 사업 진행 과정 및 행사 평 현재 학교가 돌아가는 사정을 학생의 입장으로 볼 수 있었던... 학교의 객관적인 신문과는 성격이 다른 학생회 정보지로써 학생들의 충고 현재 우리 풍문의 모습 등을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학우들의 분위기 조성파 학생회 존재 인식 및 학우참여를 유도했던 사업.



5. 11.3학생의 날 기념행사 : 역사적 의의, 역사 바로알기, 현실 자각 및 반성의 계기
- 전시(배경, 만화로 된 전개과정, 의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앞으로의 방향, 관련 시, 사진 플랭카드, 현수막제작 등)
 - 강당공연(전개과정과 의의에 대한 연극, 선생님의 축하공연-'요즘 풍문은'이라는 풍자콩트-스포츠댄스, 소원지 전시 및 태우기)
 - 아침방송 / 기념식 : 상장수여 및 기념

● 학예부

1. 신입생 OT주관 : OT 강당공연 기획에서부터 진행 평가까지
학교소개, 학생회 홍보, 동아리 홍보
2. 진학정보 캠페인 : 풍문인이 관심있는 학과, 유망학과의 대학의 입시 정보와 학과에 따른 진로 및 직업정보를 각반 학예부 게시판 '하늘을 향해 날아라'에 매달 2번 1일, 15일으로 게시
3. 진학정보관 관리 : 3학년 복도의 진학정보 게시판 관리
4. 축제주관 : 풍문제의 프로그램 기획, 출연자 섭외, 스폰, 축제 진행 및 평가까지를 주관
5. 도서실 도서구입 : 풍문인이 원하는 도서목록을 받아 도서구입

● 홍보부

1. 사랑의 편지 : 3기때부터 실행된 사랑의 편지는 학우들의 편지를 받아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점심시간이 있는 날이면 1년 내내 운행한다. 3교시 쉬는 시간에 각 반에 들어가 학우들의 편지를 받거나 교내 곳곳에 있는 5개의 편지함을 통해 편지수거. 그리고 3교시에 모아진 편지는 점심시간에 주인에게로 배달 된다. 일종의 교내 우체국 역할
2. 무료 엽서배포 : 에드팩스에서 무료 엽서를 받아 학생회실에 게시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학생회실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한 달에 3-4회 각반에 배포된다.
이것도 학생회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는 사업이다.
3. 문화잡지 및 외부신문 배포
4. 대자보 사업 : 학우들에게 알리는 글로 학교의 행사 참여 또는 학우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은 정보물
· 달 대자보 : 월초에 그 달의 학교 학사 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대자보로써 배경 그림과 함께 달의 시작됨을 알림 예) (4월)잎새 달, (10월)열매 달 등의 달이름을 쓴다.
5. 게시판관리 및 홍보물 관리 : 학교 게시판에 붙는 게시물은 학교 선생님의 검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홍보부에서 관리하므로 허가 도장을 맡은 다음 게시 할 수 있다.
6. 건의함 관리 : 학교 곳곳 6군데에 부착되어 있는 건의함으로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열어 정리하여 회의를 통해 한달에 한 번씩 학교에 건의한다.
7. 축제 포스터 팸플렛 제작 : 포스터는 학교내에서 공모를 받기도 하고 축제 주제에 따라 직접 디자인 한다. 팸플렛은 구성부터 디자인 편집까지 모두 홍보부 내에서 이루어지며 인쇄 또한 맡아서 하고



있다.

8. 학교 홍보 및 축제홍보 : 타학교 축제 홍보를 주관하며 학교 홍보, 학생회 행사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을 맡고 있다.

9. 자료 및 캐비닛 관리(물품 관리)

● 봉사부

1. 환경캠페인 : 작은실천 - 교실안에서의 환경캠페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사례, 봉사활동 소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살리는 길을 알린다.

화장실 캠페인 - 화장실 안에서의 에티켓등을 문구 또는 만화로 제작하여 화장실 각 칸마다 부착

2. 봉사활동주관 -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학생회에서 알아 보아서 희망자를 모집하여 단체 봉사활동 자리 마련

3. 축제의 도우미 안내 관리 : 축제때 도움을 주는 도우미 관리와 손님을 안내할 안내 교육

4. 화진이 : '화장실에서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화장실 낙서판을 통하여 학생의 의견수렴(비판 및 건의)

● 체육부

1. 펍박부 캠페인 : 풍문인의 건강에 관련된 체조, 밤참, 수능에 필요한 기억력 상승법, 영양소 섭취, 다이어트, 지압법등 풍문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내용을 만화 또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한달에 2번(15일간격) 내용을 바꾸어 각 반 체육부게시판인 펍박부 게시판에 게시한다.

2. 체육대회 주관 : 9월에 있는 풍문 체육대회의 프로그램구성 및 장소 섭외 상품선정까지 체육부 선생님과 함께 맡아 하고 있다.

· 학교의 운동장이 좁은 관계로 한강 이촌지구에 가서 체육대회를 했다.

· 프로그램 : 농구, 배구, 보트경기, 카누경기, 가요제등

3. 설문지 제작 및 배포, 통계주관 : 학생회의 사업등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일년에 3번 이상하는데, 설문지의 문구구성 및 제작부터 통계까지 체육부에서 담당한다.

예) · 임기시작전 새사업을 위한 설문지

· 1학기 평가 설문지

· 1년 평가 설문지

· 용의 복장 규정에 대한 설문지



과거 학생회 활동 모범사례 ①

풍문 여고 자치 학생회의 역사

김소령(90년 풍문여고 졸업)

애 들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나에게 지금은 전교조 선생님 이 되어있는 내 후배가 전화를 해왔다. 이 글의 청탁을 위해서였다.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자치학생회(우리는 당시, 자주학생회라 불렀다)의 산 역사인 풍문의 설립과정에 대해서라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내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의심이 가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이 되어버린 그 때를 성실한 자세로 회고해보기로 하였다.

직선제 학생회를 만들기까지

87년 6월 항쟁의 바람은 우리 풍문에도 미쳤다. 그 당시 1학년이었던 나는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이하 홍고아)라는 청소년 씨클의 회장이었다. 홍고아는 김동인의 「발가락이 닳았다」라는 작품을 두고 토론하는 등 정치적인 색깔과는 무관한 단체였지만, 유월의 바람과 더불어 함께하게 된 지도 선배들은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열매는 각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인으로 나설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맺어졌다. 그 때 홍고아뿐만 아니라 KSCM등 여러 고등학생 단체들에서 자치학생회에 대한 바람은 들불처럼 번져갔고, 공개단체뿐이 아닌 몇 개의 학교들을 묶는 비공개모임들도 그때의 논의에 한몫 했다. 직선제 자치학생회를 위한 공청회등이 뜻있는 학생들에 의해 준비되었고 그런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은 나도 만들어야지 하는 의지를 다져갔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특별히 학교에 대한 불만이 뭔지도 모른 채 모범생이란 소리를 들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학교밖에서의 계속되는 자극은 잠들어 있던 나의 주체의지를 흔들어 깨웠다. 그 즈음 있었던 자살학생 추모제는 모범생이기만 했던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어느 한 여중고의 재단비리에 대한 학생들의 싸움도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자각이 들게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석관 고등학교등 앞서가는 직선제 학생회의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나도 우리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 학교의 문제는 너무나 많았다. 2학년 새로 반을 배정받고 새 선생님과 아이들이 첫 대면하는 날 담임선생님은 어이없게도 한 아이가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렸으며, 학생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공식적으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몹시 분노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체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렸다. 나는 그 일을 잊지 않기로 했으며 너무나 심각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찌하겠냐는 체념을 떨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러 하기로 했다. 그래서 처음 한 일이 반장선거였다. 반장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뽑지 못하도록 반장선거를 직선제로 하도록 조직했고 거기서 내가 반장이 되었다. 두 번째로 반장들의 모임인 대의원회의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선생님들이 제시한 의제로 기계처럼 찬성의 손을 들어주는 회의는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일사통과에 익숙하던 회의에서 논리적인 이유들을 들어 반대하고 반친구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의결하자고 건의하였다. 대의원 아이들은 그런 내가 끈속스러운 법도 했지만 2학기 대의원 임원단 선출시 나를 2학년 학생장으로 뽑아 준 것을 보면 말 잘 듣는 아이들로 구성된 듯한 대의원들도 가능성있는 나의 동료였다.

하지만 간선제 학생회를 개량화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교육의 주인으로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자면 직선제 자치학생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문제해결로 나갈 수 있게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어려운 문제였다. 그 답은 함께 할 친구에게서 찾았다. 그 때까지 난 한편으로 입시대비를 위해서 밤늦게는 입시단과학원에서 영어를 수강하고 있었다.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다. 안국동에 있는 학교를 멀리 피해 서대문쪽의 학원을 다녔는데 거



가서 날 알아보고 다가온 친구는 우리학교 옆반의 친구였다. 그 친구와 뜻을 맞추면서 소모임을 만들기로 했고 우리반 친구 세 명과 대의원 하면서 뜻이 맞았던 옆반 반장 이렇게 여섯 명에서 학교 민주화를 위한 소모임을 만들었다. 여기서 우선 교육전반에 대한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 일제 시대부터 있어왔던 고등학생 운동의 역사, 4·19에서 5·18로 6·10으로 이어져온 현대사등 우선 폭넓은 영역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다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왜 자치 학생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의를 다졌다.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일제 시대 고등학생들이 대사회적인 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을 보면서였다. 고등학생들의 정의를 향한 피끓는 의지, 그 실천의 역사를 확인했고 미성년이라는 미명아래 스스로의 문제를 아무것도 결정할 능력이 없는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결코 없음을 알게되었던 것이다. 군부독재 정권 때부터 행하여진 학도호국단의 병폐는 고등학생들의 정의로 향한 순수한 성향을 획일화하고 명령복종식 교육으로 그 싹을 꺾고자 하였기에 우리는 그 잔재인 간선제 학생회를 민주를 갈망하는 시대의 사명으로 직선제 자치학생회로 반드시 바꾸어야 하였다. 우리 소모임의 첫 번째 싸움은, 11월 3일 광주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유인물을 만들어 새벽녘에 학교 곳곳에 배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내용은 그 날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그 뜻을 이어받아 직선제 학생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다. 유인물은 거의 전량이 선생님들에 의해 수거됐지만 그 반향은 컸다. 학교에서 긴장하기 시작했으며 대의원회의에서 직선제 학생회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적극적인 공세로 몰아나갔다. 퇴학의 위협을 감수하고 벌여나간 일이었으나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학교에서 누가 이런 일을 벌여가는지 주동자를 색출해 내서 징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89년 전교조 선생님 지원 싸움 때도 학생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었다. 이것이 우리 풍문에서 직선제 학생회를 다른 학교에 비해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였음은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학생들을 징계해대던 타 학교에 견주어 그렇다는 얘기지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우리는 대의원회의를 연이어 소집했고 대의원회가 끝나면 대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설득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드디어 직선제 학생회를 의제로 전학년 반별 찬반 투표를 벌였다. 소모임에서는 직선제 학생회의 필요성을 담은 유인물을 다시 배포하였으며 드디어 투표의 결과 1학년 한 개 반을 뺀 전학년의 찬성으로 직선제 학생회로의 감격적인 전환을 하였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활한 직선제 자치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회칙 개정위원회를 대의원대회에서 뽑아 구성하였다. 학교의 의사를 대변하던 선생님들은 우리의 치밀한 준비정도에 그쳐서야 놀라, 정신을 차리셨는지 선생님들도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우리는 서로 준비한 회칙을 가지고 장시간의 협상을 하였다. 우리 소모임에서 준비한 회칙은 모범사례로 소문난 석관고등학교등 여러 모범사례들을 모두 검토한 끝에 최선의 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것을 나와 또 한 친구가 개정위원회서 발의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설득 학생측 안을 만들어 냈으며 그것을 선생님들과 토론 끝에 우리측 안을 조금 양보한 것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후에 전교조 선생님이 되신 김홍식 선생님의 역할도 컸다. 김홍식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의 개정위원회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설득하여 주셨으며 후에 학생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학교측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지원해주셨다. 이렇게 자주적 직선제 학생회를 가능케했던 회칙은 학생들의 주체적 노력과 교사의 적극적인 측면지원으로 만들어졌다.

회칙이 만들어지자 본격적인 자치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학생회, "일하는 학생회"로 만들기 위해 일꾼을 준비하는 일이 먼저 제기되었다. 회장과 부회장이 뜻을 맞추어 일하기 위해서 런닝메이트 방식을 회칙에서 채택했는데 선거전에서 최소한 두 팀 이상이 나와야 불꽃튀는 각축전이 벌어져 학생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팀의 후보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 팀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소모임 구성원들은 모두 부장단급으로 참여해서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래야 회장단만 달랑있는 학생회가 아닌 일하는 학생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모임 밖의 친구들을 새로이 물색해서 회장, 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우리가 아는 연줄을 총동원해서 회장감으로 적격이라고 판단된 한 친구를 섭외했다. 그 친구는 성적이 우수한 친구가 아니라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해보라고 연거푸 거절했다. 우리(소모임)는 성적이 우수한 친구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학생회에선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적극 추천했다. 그 친구는 방학이면 공장에 가서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쓴 적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 점이 우리의 추천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선 그만큼 일할 줄 아는 건강한 품성을 우리의 대표 자격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열번 이상의 설득으로 마침내 허락을 받았고 올바른 학생회의 위상에 대해 자주 의견을 나뉘 우리와 뜻을 맞춰나갔다. 그리고 우리 소



모임의 구성원이 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학년이 되니만큼 2학년의 소모임 창출이 시급한 문제였다. 소모임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학내 씨클이 유용히 활용됐다. 씨클 후배들 중에 가능한 친구들을 만나 밥 사줘 가면서 설득해 마침내 5인의 소모임을 만들었고 이들이 첫 학생회의 차장단으로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세 번째로 학생회를 도와주고 견제할 씨클연합을 만드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씨클활동은 학생회가 다 포괄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자주적활동의 폭넓은 장이 되어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주 학생회의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의 구실을 톡톡히 해내리라 생각했다. 그러려면 선생님으로부터 지원은 받지 독립하여 운영하는 연합회장단을 구성하고 연합적 활동들을 늘려 실질적 힘을 키워야 했다. 씨클연합을 운영할 친구를 씨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2학년 친구중에 물색하여 섭의를 하고 생각을 맞춰나갔다. 첫 번째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이니만큼 무엇보다 우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치밀히 준비하였다. 함께 활동할 주요 친구들과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허심한 토론을 하고 뜻을 맞추는 과정 또한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친구들과 뜻을 맞추게 되었는데 그만큼 학생들은 자주적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누가 어떤 치밀한 과정으로 이끌어주느냐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일꾼을 준비하고 비로소 학생회장선거를 하였다. 어렵게 두 팀이 후보로 나갔고 그들은 각자 선거 참모단을 구성하여 축계분위기의 선거를 이끌었다. 아직은 자치의 경험이 없어 직선제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관심이 미비했던 학우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각반 돌며 참모단이 노래와 춤을 보여주기는 기본이었고, 교내에 대자보가 물결쳤으며 방송유세까지, 첫경험으로서 우리의 선거전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냈다. 두 팀의 각축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개표당시 손에 땀을 쥐도록 두 팀의 표는 얼치락뒤치락했다. 결국 기대했던 팀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팀이 되었다고 해도 첫 번째 학생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배수진을 친 팀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투표후 탈락된 팀의 회장후보로부터 많은 욕을 먹어야 했다. 그 친구도 경선을 위해 내가 섭의했던 것이었기에 그 친구의 배신감은 컸으리라. 만일 그 친구가 이 지면을 보게된다면 어렵게 만든 학생회의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 놓고 불구경 하듯 할 수는 없었던 충심을 이해해주길 부탁하고 싶다.

회장단 선거 이후, 각 부의 부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차장과 각 부의 부원을 구성하였다. 그들 모두가 각반을 돌며 학생회를 홍보함과 동시에 부원들을 공개모집하였다. 그냥 선임해도 되겠지만 공개모집으로 선출됐다는 자부심이 각별하리라 생각하였고, 그러한 홍보과정이 모든 학우들에 대한 자치활동교육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해서였다. 이렇게 모양을 다 갖춘 학생회는 학생회비 예산을 짜는 것을 시작으로 그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 틈틈이 구성원의 교육과 공동체 의식 키우기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여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몇가지만을 언급하면 4.19행사, 참교육 집회 참여 등 전교조지지 활동 등이 있었고, 부서별 활동으로 총무부는 학생회비관리, 홍보부는 학생회홍보 및 학내 친구들간의 편지배달, 학예부는 학우 및 학생회 일꾼 교육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밖에도 봉사, 생활, 체육부등이 부서별로 활동을 하였는데, 활동 과정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자리매김됐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학우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 오지를 못하고 소수의 학생운동으로 머물렀던 것(전교조 싸움에서는 예외)이었다. 일꾼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생회에서 모여 활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교육하느라, 별보고 어두워진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반아이들과의 교류할 시간을 갖지못했던 것이다. 또한 각반과의 연결고리인 반장들모임 대의원회의 무관심한 태도, 학생회의 지원세력으로 상정했던 동아리연합의 자기단체이기주의,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체화된 학우들의 비주체성(학생회를 남의 일로 바라보는 것), 학생회담당 선생님들의 권위적태도 등이 우리 활동의 어려움들이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선생님들과 싸우느라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였다. 무엇보다 자치학생회의 선형적 모델 부족은 우리를 난감하게 할 때가 많았다.



성과 및 역사적 의의

이러한 문제점들 속에서도 우리의 학생회는 지금까지 십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이어져왔다.

직선제 자주 학생회의 건설은 자치학생회의 회장을 스스로 뽑는 경험을 전학우들이 갖게 됨으로써 학교의 주인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토대를 교육 받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같은 처지가 아님을 권위적인 학교관계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교사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결국에는 참교육의 길로 선생님들을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견인차 노릇도 하였으리라. (얼마 전, 그 당시 학생회 탄압에 앞장섰던 분께서 나를 만나서 잘못을 사과하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한 친구를 통해 보내오셨다. 우리의 활동이 선생님의 의식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고 기뻐다.)

우리는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후배양성에 힘썼다. 일꾼들이 학내단체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해 교육문제 뿐만이 아닌 전사회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서 토론하고 참교육집회등에도 참여하였다. 학교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으로 낯눴도록 지하 학생회실을 지키며 함께했던 친구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렇게 학생회에서 키워진 일꾼들은 졸업후에도 부끄러우나마 각자의 영역에서 주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이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4· 19와 11· 3학생의날 행사를 주도하며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의 역사적 맥을 계승했으며 주변의 학교들에게 영향을 주어 타학교의 친구들이 학생회를 만들도록 격려했다.

마치며 - 내 아이에게도 권장해야 할 자치 학생회

나는 아이가 둘 있는 애기엄마다. 큰애가 일곱 살이니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간다. 나도 어느새 학부형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한 둘이 아니다. 학교의 현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또 예나 지금이나 역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입시제도와 교과서의 약간의 변화가 떠오를 뿐, 좁은 교실에 많은 학생들, 획일적인 교과 과목, 획일적인 교과서, 그리고 주입식 교육, 대학입학만이 살 길이라고 몰아치는 분위기등. 내가 과거에 느꼈던 숨막힘이 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까 두렵다. 아직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스스로 제 역할도 찾아내고 있지 못하며, 사회는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온통 떠들어댄다. 비디오와 컴퓨터 세대인 지금의 감각적이면서도 개성이 강한 아이들에게 계속 지금처럼 잘못된 교육방식을 고집한다면 재미없고 숨막히는 학교에 대해 일탈해가는 아이들이 늘어갈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열쇠인 자치학생회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가 자라 중고등학생이 된다면 여럿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자치의 보람을 느끼라고, 그 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해보라고 권장할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고 조합원수도 7~8만이 된다하니, 쫓겨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붙잡으며 울던 때가 떠올라 감격이 더욱 벅차다. 전교사의 1할도 안되는 선생님들이 지난 시절, 갖은 박해를 받으며 일꾼 것이 오늘의 전교조이듯 자치학생회를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주체의 준비와 헌신, 실천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예전보다 어려운 행로일 수 있으나, 학생들의 역동적 사고와 열린 몸짓을 믿는다면 그 어떤 투자보다 소중한 투자이리라. 지금의 후배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앞서 학생회를 만들었던 풍문의 경험을 잘 참고하여 자치 학생회를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가게 해 주길 부탁한다. 오늘의 교육문제를 어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주인답게 헤쳐나가길. 힘내자 우리!!!!



학생회 활동 모범사례②

성동여실 학생회 사례

1989년 전교조 투쟁으로 성동여실에서는 3분의 선생님이 해직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그러하듯 이런 학교의 상황을 학생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전교조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가열차게 펼쳤으며 그 영향으로 1990년 성동여실은 학생회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쟁취했다. 이렇게 1990년 직선1대 학생회의 출범으로 학내자치활동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지면을 통해서는 1993년 직선4대 학생회 활동 사례를 소개하려한다.

1992년 11월! 학생회장 선거가 있던 달

우리 학교는 학생회임원선거를 11월에 합니다. 1992년 당시 3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그야말로 왕 범생이 후보였고 또 다른 한 명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후보였고 마지막후보가 바로 학생들이 지지하고 밀었던(?) 후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유세기간이 되자, 쉬는 시간마다 교실 문을 푹푹 두드리며 후보들이 참모들과 함께 씨끌벅적하게 한바탕 선거운동을 하며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CF노래를 노가바하여 부르기도 하고 팔막하게 콩트 형식의 촌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지각색의 구호들.. 선전물들이 온 학교를 넘실거렸습니다.

드디어 선거날.. 마지막 유세를 방송으로 하였습니다.

기호1번 :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취업이 제일 잘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호2번 : 저를 뽑아주세요.. 기호 2번입니다.

기호3번 : 동아리활성화,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 "발로뛰는 학생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마당발 기호3번을 기억해주세요!!

투표 용지가 돌아왔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1,2,3학년 대의원들이 모여서 개표를 하고 중간 중간 결과를 칠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기호3번!! 학교의 주인은 우리 학생들이라며 동아리, 학생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세운 기호3번이 압도적인 투표 결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선4대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 속에서 학생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발로뛰는 학생회"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공약을 지키는 멋진 학생회였습니다. 3월이 되자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운영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성동여실에는 총무부, 봉사부, 기능훈련부, 체육부, 학예부의 5개 부서가 활동하였습니다. 학생회 임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부서를 책임졌고 자신의 부서가 확정되고 나서는 모두 정기 모임 날도 정하고 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줄까, 학교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학급회의 안건은 무엇으로 할까? 우리 학생회가 나서서 무엇을 해볼까?" 이것이 학생회 임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운영위를 건설하고 H.R.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면서 점점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생회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의 목표와 슬로건도 정하였습니다. 바로 "친구사랑, 학교사랑, 나라사랑" 이었습니다.

"친구 사랑하기"를 학교에서, 반에서, 짝궁이랑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장부터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장은 그저 담임선생님의 수발을 드는 심부름꾼이나 학급비를 걷는, 과제물을 걷는, 혹은 학생들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 반장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 수범하고 우리를 뽑아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두팔 걷어 부치고 나선 활동은 바로 "화장실청소하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전교 화장실 청소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반장들은 수요일은 집에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정한 실천 활동을 펼치자는 것이 그 당시 본의가였습니다.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중회를 마치고 구령대에 모였습니다. 물론 집에 가는 반장 부반장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반장 부반장이 동참하였습니다. "디자인과 화장실은 디과 1학년 반장들이하고... 상과 화장실은 상과2학년이 함시다.." 마당발 학생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말 벗고 맨발로 뛰오다니면서 뽀짝음도 하고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매운 떡볶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도도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아, 짬은 3반 반장이지"하던 사이였는데 점점 학생회 간부들끼리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학생회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더 불이 붙어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1-2개월 진행하다보니 "학교에서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뭔가해보자"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이라는 소모임도 만들어 재할원 봉사 활동, 농촌 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이밖에도 일반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잔의함을 반마다 만들었고 반마다 한술밥 비벼먹기, 모듬일기 돌려쓰기, 1-2-3학년 자매맺기, 라니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동감있게 학생회간부들이 움직이니 체육대회나 축제, 소풍도 그냥 식상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치있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뭔가 하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재미없는 학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체육대회, 학생들 전체가 만들어 가는 축제를 꾸려나가니 학교전체가 들쭉거리고 신났습니다.

체육 대회 때는 과마다 반마다 티를 맞춰 입고 티에는 과의 특성에 맞게 우리 마음의 뜻을 문구로 새겼습니다. 디자인과 티에는 "디자인과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임"의 준말로 "티아모"라는 문구를 정보과는 소수 정예과로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체육 대회 날 아침 운동장에 모인 전교생은 마치 영화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발주노초과남보 무지개 색의 화려하고 다양한 티를 입은 모습, 진달래 색깔은 화려한 술을 흔들며 치어걸들, 그 동안 연습한 춤들, 노력들, 응원들, 만수무강,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정보과에서 맞춘 "우리는 하나"라는 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표감 선생님께서는 문구가 선동적이고 집단행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못 입게 하셨습니다. 정보과 친구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티를 입고는 절대로 운동장을 못 다니게 한다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정보과 반장들은 반에서 주석 H.R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티를 거꾸로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입어야하는데 뒤로 입었습니다. 문구가 앞기술에 와야 하는데 등에 오게 말입니다. 티를 전부 뒤집어 입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처럼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미미한 과나, 반은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과에 대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제 또한 온 학생의 힘으로 이뤄졌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학생회에서 먼저 '후계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후계위는 동아리 정들 중 대표 1인, 학생회 간부 중 대표 1인, 일반 학생 중 대표 1인, 정. 부 학생회장, 학예부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주적으로 대표를 구성하였고 대표는 후계위 회의를 동아리 전체 회의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자기 반에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아리들은 자신이 1년 동안 맡고 싶은 실력들을 맡겨 볼려는 자리가 마련되어있으므로 할 일이 명확하고, 학생회 임원들도 당일 도우미나 안내, 진행을 맡았으므로 할 일이 명확하였습니다. 문체를 일반 학우였습니다. 언젠가 후계준비위원 동아리의 잔치로 끝나는 문체를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각반에 1명의 도우미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약 50명의 도우미를 선출하였고 대표도 뽑았습니다. 또한, 의상부는 피션쇼를 선보이기 퍼 문체 모델을 일반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면접, 심사하여 우리 학교를 빛낼 모델도 뽑았습니다. 어떤 축제를 바라는지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동서실 전체 학생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 학중이를 나눠주고 소원을 실은 학을 잡게 했습니다. 반장을 손을 통해서 1시간에 학중이가 나눠졌고 아이들은 정성스레 학, 거북이를 걸었습니다. 수 백, 수 천 마리의 학이 학생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학생회의 슬로건인 "친구사랑, 학교사랑, 나라사랑"을 커다란 스티크로써 쓰고 그 밑에 접은 학을 학생들이 한 명에 하나씩 묶는 행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의 소원을 담은 대형 학들이 정문 앞에 세워졌고 축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자랑, 은강 동아리발표, 선생님들 합창, 피션쇼... 마지막은 풍물패의 대동제였습니다. 거기모인 우리 학교 학생, 타 학교 학생, 선생님들 손에 손을 잡고 4박자 춤을 추고 노래부르고, 어우러졌습니다. 우리는 열차안으로 반물을 즐겼습니다.

직선 5대학생회를 위하여